

# “시민들과 함께 비전 만드는 현장 속 행정 펼치겠다”

## 광주시장 유력 후보 인터뷰 - 윤장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시민사회단체 ‘대부’로 불리는 윤장현 전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장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에 합류하면서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새 확산을 해왔던 윤 위원장은 이제 ‘통합 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위해 조만간 출마를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경선전에 뛰어들 계획이다.

광주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3가지만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정신의 회복이다. 세계적으로 도시 이름 뒤에 정신을 붙이는 곳은 광주 밖에 없다.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당당한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눈 앞에 보이는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크게 보고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복지는 인권이다. 국가가 엄격하게 그어놓은 복지선상 밖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광주시민 단 한사람도 수도와 전기, 가스가 끊기거나 밥을 굶어서는 안된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행정이 찾아가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의 넉넉한 삶이다. 광주가 외형은 커졌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당당하기 위해서는 넉넉해야 한다. 지역경제를 혁신적으로 살려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무작정 일자리를 늘리는 것 보다 고용의 질이 중요하다.

광주시정 가운데 가장 잘 되고 있는 것과 잘못되고 있는 것을 1가지씩 꼽는다면?

▲광주시의 현안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문화 관련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반면, 시민들을 만나보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국제규모의 체육행사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소외계층 등 서민에 대한 행정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격적으로 탄생하게 될 ‘통합 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아갈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2017년 정권교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정치개혁과 민주주의는 퇴행하

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고 있다. 현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수권정당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또 하나는 새 정치다. 낡은 관행과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능을 보고 외면했던 국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금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로 민주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에서 새 정치를 실현하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면, 대선에도 희망이 있다.

양 진영의 5대5 지분 구조로 인해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

고 있고, 이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논의 틀은 합의정신에 입각해 5대5로 시작하되, 양 진영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합리적 대안을 통해 채택해야 한다. 서로 기득권을 갖기 위해 싸움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를 양 진영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이를 놓고 티격태격한다면 새 정치 기치만 내세우고 구대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곧바로 등을 돌릴 것이다.

경선이 곧 당선 구도가 됐다. 가장 바람직한 광주시장 공천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당이 통합해 새 정치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개인적 유·불리와 살아 싸움 보다는 큰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가 어떻게 전국적인 상황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전적으로 중앙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KTX 송정역 일원화와 광주역 진입 문제에 대한 견해는?

▲도시계획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광주 동구의 경우 평생을 일궈놓은 재산이 하루 아침에 반 토막 나는 경우도 있다. 편의성과 효율성도 좋지만, 시민들의 재산 보

호 측면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의 합리적 판단이 중요하다. 광주역의 존폐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더 깊이 있게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이 문제가 앞치라뒤치라해서는 안 된다. -행정경험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극복방안은?

▲보는 관점이 다르다. 행정을 권력의 통치행위로 보는 것은 좁은 시각이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동적 행위라고 봐야 한다.

CEO 1인이 결정하고 공무원조직

### 공천 방법은

통합의 새정치 발맞춰

유불리 따지지 않고

중앙당 결정에 따르겠다

이 수행하는 수직적 구조가 신속하고 단기적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작용이 크다. 시정에 시민이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절차다. 민의를 수렴하고, 의사결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피드백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가버너스(governance)의 시대다. ‘관리의 다변화’가 핵심이다. 행정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한 시민운동의 경험이라는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의 잘 보여주어 있다.

-시장이 된다면 어떤 행정을 펼칠 것인가

▲행정은 현재 뿐 아니라 후손들에 대해서도 무엇을 해줄 것인가. 접근 방식은 CEO 스킬의 행정보다는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과 함께 비전을 만들어가는 행정이 필요하다. 특히 관료들의 관치가 아닌 시민들과 협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운동도 현장 속에서 이뤄지는 만큼 현장 속 행정을 펼치겠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는 감동과 논리다. 정부가 공약이라며 기업체를 광주로 가라고 하면 가지 않는다. 기업은 이윤을 쫓는다. 따라서 다른 지역과 달리 행 반 토막 나는 경우도 있다. 편의성과 효율성도 좋지만, 시민들의 재산 보



### 주요 공약

####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 상생 공동체 만든다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호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 공동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직 출마선언을 하기 전이어서 공약은 모두 완성되지 않았지만, 주요 공약은 광주와 전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은 전남도청 이전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호남정체 역할이 사라지면서 호남의 상생 공동체가 해체됨에 따라 광주와 전남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분리된 광주와 전남의 발전연구원 통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광주와 전남을 분리해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태생적 뿌리가 같은데 마치 중세시대 군주처럼 영토를 나눠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분리될 때 그렇게 분리 반대를 주장했던 것은 지역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싱크탱크가 나눠서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광주와 전남이 함께 하는 중국과의 경제·관광 등의 교류 확대와 의료와 문화 허브 거점 도시 조성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될 예정이다.

영남의 경우 과거 일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발전이 이뤄졌다면, 광주와 전남은 서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인접한 G2 국가인 중국과의 우호적 환경을 만들어 경제적 교류를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호남’이 아닌 정(情)이 들쭉 담긴 ‘남도’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윤 위원장의 주요 공약중 하나다. 남도의 맛과 멋이 물씬 풍기는 호남이 전국의 퇴직자들에게 넉넉한 여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동네로 패러디언을 바꾸어 한다는 것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걸어온 길

#### 안과 의사 출신 ... 통일·인권·환경 등 시민운동 주도

1949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광주 서중과 살레시오고를 거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1983년 중앙안과(현재 아이안과)를 개업해 안과 의사를 하고 있다. 학창시절 독서로 세상과 역사에 눈을 뜬 뒤 민주주의와 환경생태, 지역을 살리는 일에 몰두해오는 등 청장년기 주로 시민사회운동에 전념해왔다.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아름다운 가게 전국대표,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광주·전남 남북교류협력협의회 상임대표와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등을 맡았으며, 현재는 광주·전남 6·15 공동준비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온정인민병원에 안과장비를 기증하고, 백내장 무료 수술을 해주시기도 했다.

인권 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자문위원 활동을 했으며, 광주 국제교류센터 이사장도 지냈다.

특히 (제)5·18 기념재단 창립이사를 역임하는 등 1980년 5·18 이후 ‘광주정신’의 세계화와 열성을 다해 온 인물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기자들간 광주공장 경영자문위원과 (사)광주·전남 비전 21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경제발전과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권유로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3월 22일은

# 세계 물의 날 입니다

“Water & Energy (물과 에너지)”

**세계 물의 날 기념식**

- 일시 : 2014. 3. 21(금) 10:00~13:00
- 장소 : 나주시 영산대교 인근(나주시 삼영동 소재)
- 주최 :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관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협조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군부대(3)
- 내용 : 식전행사, 기념식, 식후행사(약 1,000여명 참여)
- ※ 하천정화활동 : 영산대교 주변(하천 수증정화활동 실시)

**세계 물의 날 부대행사**

- 정화활동, 물의 날 기념 심포지엄 등 개최

mev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